“불교, 말·생각·행동 일치시키는 삶”

‘박영동 수석 교법사’ B1면에서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불교를 처음 만나게 해준 친구부터 향림사에서 신행 지도를 해주신 천운 스님, 출가 은사 스님이신 녹원 스님, 불교에 대한 전문 교육을 해주신 목정배 교수님, 법사로서 설법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박완일 회장님까지 인생의 스승들에게 배운 것들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스승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재학 당시 파라미타 학생회 불교반이었던 2018년도 졸업생들이 퇴임을 앞둔 박영동 교법사를 찾았다.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박수빈, 이소현, 박영동 교법사, 이소정, 이화정, 이의진 씨.


7월 10일 열린 퇴임 기념법회에서 후배 교법사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1973년 천운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창립된 광주불교학생회의 모습.



공군 군종장교 재직 시절 모습. 뒤로 혜정 스님이 내려 준 휘호 ‘오수부루나(吾隨富樓那)’가 보인다.

법사이자 스승으로 살다

사실 교법사로서의 30여 년의 삶은 녹록치만은 않았다. 지금은 수석 법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교법사의 위상이 강화됐으나 박영동 교법사가 첫 부임했던 시기에 교법사는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 인식됐다.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당시에는 대부분 교법사들이 법사실이 없어 교무실의 모퉁이에서 생활했습니다. 교사 명렬표나 졸업앨범 등에서도 평교사와 같이 나이 순서에 의해서 표기됐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법사’가 아닌 ‘선생’의 호칭으로 불렸죠. 매년 첫 법회에서 ‘나를 교법사로 불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교법사가 단순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보모, 교직원들의 신행생활을 이끄는 ‘법사’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제는 학교마다 법당과 교법사실이 마련되고, 법복이 개정돼 법사로서의 위의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담임업무, 당직 등에서 벗어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화활동을 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됐죠. 명렬표에서도 교장, 교감 다음으로 표기하게 됐습니다. 교법사 위상 향상은 현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와 이사장 소임을 보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수석법사 제도도 일면 스님이 최초로 저를 임명하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교법사로 봉직하며 많은 학생들을 맞이하고 보냈다. 그들은 이제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인터뷰 당일도 파라미타 학생회 불교반 활동을 했던 2018년도 졸업생들이 퇴임을 앞둔 박영동 교법사를 찾아왔다. 이들은 박영동 교법사를 ‘소통하는 스승’으로 기억했다. “겉이 아닌 뒤에서 보살펴주시는 진심이 느껴지는 스승”이라는 것이다.

스승인 박영동 교법사도 제자들과의 에피소드들이 많다. 몇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영동 교법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1989년도 명성여고(현 동국대부속여고)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국어선생님이 쓴 불교연극대본으로 축제 기간에 공연을 했습니다. 아난존자가 마등가를 교화하는 게 연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극이 호평을 받아서 서울예대 동랑예술제 출품을 했고, 수상까지 했습니다. 주인공 학생은 이를 계기로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지난 2012년 동국대부속여고에서 파라미타 학생회 활동했던 제자 6명이 모두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을 때에는 교법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손해 보며 살자”

3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한결되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 질문에 “손해 보면서 살자”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인용한 박영동 교법사는 “이기심을 버려야 나도 남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정도 수행법의 첫째 항목인 정견(正見)은 세상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시간에 알아차림 같은 명상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불교의 연기적 가치관, 세계관을 터득하도록 지도합니다. 한 마디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연기를 바탕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며,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것이 자아실현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박영동 교법사는 불교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언사행(言思行) 일치 운동’임을 강조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은 ‘응병여약 대기설법(應病與藥 對機說法)’으로 상대의 상태와 근기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법을 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궁극 목표는 말과 생각, 행동을 일치시키고 참 생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 34년

1985년 명성여고 교법사 첫 부임

불교 알아가는 학생 보면 큰 기쁨

한해 제자 6명 불교학과 진학 ‘보람’

“‘손해 보는 삶’이 나의 교육철학”

교법사, 현장의 전천후 포교사

학교서 佛法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신행 지도자

초창기엔 인식 부재로 어려움 많아

학교법인 노력으로 현재 위상 강화

法師의 길은 계속된다

8월 30일 퇴임… 앞서 퇴임법회도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개발하고파

“전문가로 거듭나라” 후배 조언도

포교, 지속적 관심만이 해법

이야기는 자연스레 청소년 포교로 넘어갔다.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구상하는 대안도 많을 터다. 박영동 교법사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첫 과제로 ‘지속적 관심’을 꼽았다. 일회성 행사 위주의 종책으로는 청소년 포교가 나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찰과 일선 불자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청소년 포교는 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효율적인 청소년 포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당해 지역의 초·중·고교 불자 교사를 찾아 이들의 신행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불교의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종단의 지원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법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1980~90년대에는 학내 법당을 건립하고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교법사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내실있는 청소년 교화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종립학교에는 학내 법당이 조성돼 있어요. 교화 환경은 어느 정도 완비된 상황입니다. 이제 후배 교법사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 불자 교사 모임과 연계해 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교법사들도 이에 맞춰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퇴임 후에도 박영동 교법사는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게 부처님 말씀을 쉽게 풀어 쓴 책을 발간하고,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불교성전〉도 편찬하고 싶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러 법회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사로 살겠다는 게 그의 퇴임 후 계획이다.

마지막, 그에게 “왜 관리자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웃으며 박영동 교법사는 담담히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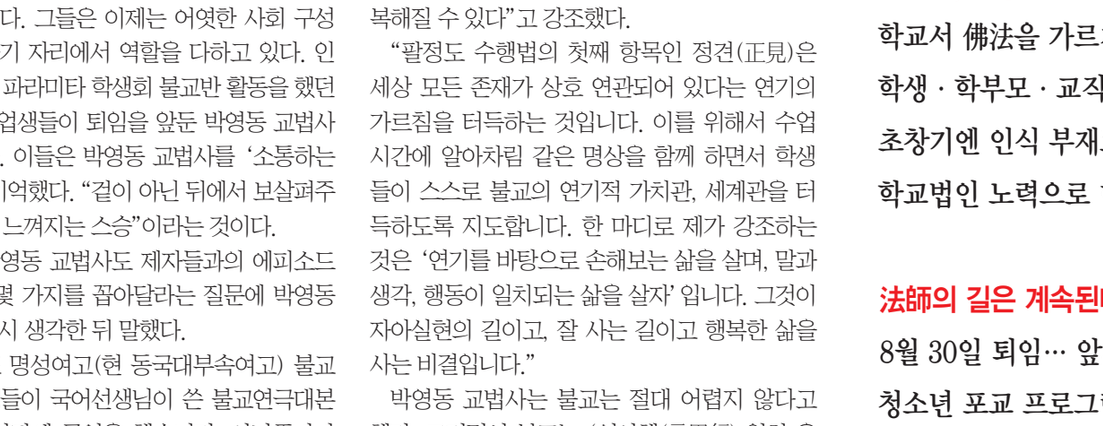
“나는 교법사입니다. 교법사는 학교 법당에서 학생들을 만나야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길, 미국 시인 헨리 반 다이크의 시 ‘무명 교사에 대한 예찬’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유명한 교육자는 새로운 교육학의 체계를 세우나,/ 젊은이를 건져서 이끄는 자는 무명의 교사로다.// 그는 청빈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안주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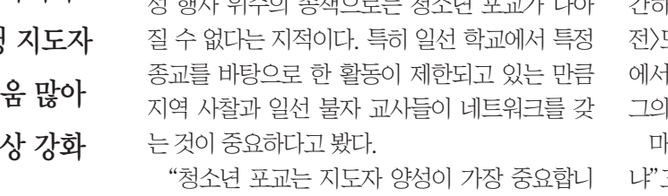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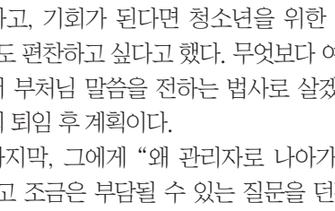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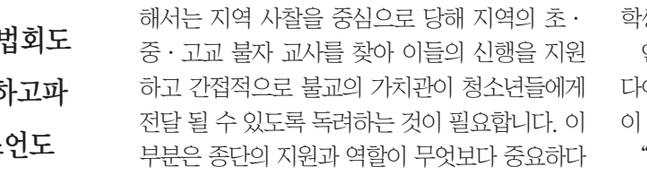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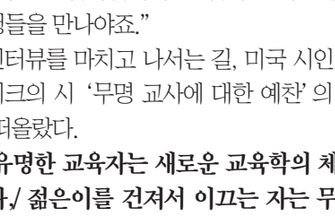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